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도피안사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열이 정해졌는지 모른다. 항상 수월이 먼저였고 파현이 그런 수월을 금강 그릇 때우듯이 삼기는 것이었다.

어느 때는 그런 서열이 수직(垂直)의 관계로 되어 상하의 차별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고대인도의 세존은 그의 수많은 제자들을 하나같이 "착한 벗이여" "벗이여"라고 불렀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과 미혹 사이를 함께 하는 수평(水平)의 동행자로 여겼다.

거기에는 어떤 수직적인 주종(主從)도 상정도 노복도 삼자(三者)의 규범도 다 벗어난 진리의 벗과 벗이 있을 따름이었다. 실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도록 세존과 그의 제자들

많은 이 심창치 않은 어떤 징후의 시대에 두 사람의 금강산행은 푸대접에 갖가지 시련이 거듭되는 고행이었다.

파현은 이런 세상에 너무나 서물렀다. 그러므로 그는 그때에도 수월에게 의지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아니 수월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게하는 어떤 힘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두 짝이 있지. 하나는 공자에 붙어붙어 공부하는 놈을 다그치는 살인도(殺人刀)가 그것이고 하나는 공부하는 놈을 자유롭게 해서 제대로 터득하게 하는 활인검(活人劍)이 그것이지... 파현스님은 어느 것을 가지고 살까?"

이런 때 파현의 입은 실로 썩은 것 같았다.

"아이고 이 화상(和尙)아, 두 칼 다 녹여서 쓸모가 없다고 뒷좌를 한번 놓을

"그랬겠습니까."

"공에 자꾸 이곳 부처님이 나타나서 몇 백년동안 굶어서 이기는 앉았을 힘이 없다고 하셔서... 어서 나에게 밥 한 그릇 갖다 다오라고 하셔서... 이런 굶어 자꾸 되풀이되어서..."

"그랬겠습니까."

곰보처사는 이렇게 파현의 정중한 말씨에 대꾸하고 있다가 그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수월을 힐끗 쳐다보았다. 마음의 한 구석이 바람을 만난 팔랑개비처럼 갑자기 돌면서 한기증이 일어났다.

그가 자리를 피하였다.

"가다라시지요. 신 부처님을 위해서 곧 공양을 지어올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참선을 하시는지요?"

"그것이야 금강산 도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저 혼자 자고 혼자 깨고 합니다.

천년봉어리이신 쇠덩어리 부처님 모시고..."

있을 때는 그야말로 벽은 생선눈깔을 박은 듯이 몹시 눈이 흐렸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무전과 함께 구조되어 전혀

"그러시면 참선을 하시는지요?"

"참선이요? 그것이야 금강산 도인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는 소리로 아까까지 서로 주고받던 얘기를 연장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게 하룻밤을 보낸 수월과 파현은 다음날 늦은 아침에 다시한번 잠곡밥을 얻어먹고 길을 나섰다.

"하룻밤 공역으로 잘 지냈습니다."

라고 파현이 하직인사를 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두 화상님의 공역으로 심심치 않았습니다.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피안사 아래의 가파로운 비탈을 갈지자(之) 형국의 갈로 내려갔다. 온나무 일대의 단풍이 정작 단풍나무의 그것보다 더 빛났었다. 그것이 아침 햇살을 받아 그 빨간 빛깔이아랄로 어느 빛깔보다 시리고 아른 것이었다.

서리는 곧 녹았다. 밤새도록 앉았었던 수월의 몸이 누워서 코를 골았던 파현의 몸보다 더 가벼웠다. 그의 걸음이 여새꽃잎보다 마른 풀잎 위를 바쁘게 놓았다.

길이라고 해야 사람이나 짐승이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므로 숲재 뚝나뭇거리일 따름이었다.

"아니?"

"아니?"

"아니 저랄라기?"

이렇게 언거루 파현이 놀라는 것이었다. 파현이 뒤를 돌아다 본 뒤의 일이었다.

"무슨 일이요?"

라고 수월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연 눈발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이 여겨 찾아갔던 도피안사. 그들이 하룻밤 머물렀던 도피안사가 그 자리에서 없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잠곡밥을 해주었던 곰보주지는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파현이 수월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올라가 볼까요?"

수월이 한동안 멈춰 서 있다가 "그냥 갑시다" 하고 걸음을 때어 놓았다.

두사람은 그 놀라운 사실을 오랫동안 가슴 속에 담고 길을 걸었다. 포천방에서 산악인 출신이 밭 뒤쪽처에 닿아 걸음이 더

더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어느 상당(上堂) 설법이라도 듣기 위해서 새삼 진지하게 법당에 올라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금강산 경내에 이르렀고 있었다.

한 산줄기의 마루턱을 넘자 나그네 한 켤을 만났다. 그들과 서로 한 마디씩 인사를 나눈 뒤 멀리 금강산 비로봉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반바닥에 붙어 있었다. 수월을 뒤따르는 파현이 벽찬 숲 때문에 애를 먹었다. 줄곧 앉았던 도피안사와 곰보주지에 대한 생각이 이어졌다.

그림·조향숙



### 수미산

사이의 마음은 평평하게 이어져 간 것이

다.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온 불교에 중국 군사부일체(軍·師·父一體)의 강대같은 사회구성의 윤리가 스며들어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통을 전하는 일에 지나시도록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배려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도 죽여라'라는 선학(禪)의 명명 아래 실로 피를 흘려내는 한국도 펼쳐졌다.

불교란 불타의 가르침이나 법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나 법까지도 다 불태워 없애야 하는 구경에 있다. 아니 그 구경조차 없어진 경지 거기에 불교라는 것이 죽고죽어 살아나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경계와는 동떨어진 조선 산야를 떠돌고 있는 천민(賤民)으로서의 승려가 그들의 목재감질 밖에는 어떤 과격조차도 함부로 내보일 처지가 못되었다.

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이나 다름 바 없고 것바치나 다름 바 없었다. 그래서 조선 주자학체에서의 7천(七錢)에서 불교승려가 빠질 까닭이 없었다.

그것은 오랜 공중의 내불(內佛)인상과는 다른 가혹한 현실로 인해 고쳐질 줄 모르는 긴 세월의 누대를 이룬 것이다.

이런 세상에도 길을 나서는 사람이 부파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이니

를 불러"

이런 풍요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

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